

곤륜 최창대의 누정시 연구*

이황진**

<차례>

1. 서론
2. 곤륜의 누정시 목록과 그 창작 배경
3. 일가친지를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 누정
4. 자락(自樂)의 공간
: 악부시로 창작된 누정시 2수 - <초연대가>, <문월정가>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에 활동한 소론계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곤륜 최창대(1669~1720)의 누정시를 고찰함으로써 그의 누정시가 갖는 시대사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기획된 글이다.

먼저 최창대가 누정시를 창작한 시기와 그 창작배경에 주목하여 최창대에게 누정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았다. 최창대의 누정시 창작시기와 그 창작배경을 보면, 대부분이 부친 최석정, 숙부 최석항, 외삼촌 이인엽, 외사촌 동생 이하곤 등의 일가친척이나 홍세태, 이하영 등 지우와 함께 하며 지은 것들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최창대에게 누정은 일가친지(一家親知)를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최창대가 그 이전의 문인들의 누정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악부시라는 형식으로 누정시를 창작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악부시로 지은 시 두편(<초연대가>와 <문월정가>)을 살펴보았다. 최창대는 누정에서 느끼는 자신의 정감을 악부시를 활용해 좀 더 자유롭게, 모의나 답습에서 탈피한 개성적인 표현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과 내용으로 시를 지었다. 여기에서 최창대에게 누정은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자락(自樂)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17세기 후반부터는 누정을 개인적 일상을 즐기는 공간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자락의 공간이 강조된다. 그리고 18세기 한시의 새로운 경향 중의 하나는 개성의 추구하고 변화의 시도이며 그러한 양상은 시의 내용이나 서정, 시체의 선택, 작풍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최창대가 악부시로 지은 누정시에서 그러한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최창대의 누정시는 17세기 후반의 누정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한시의 새로운 경향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최창대, 누정시, 누정, 악부시, 자락(自樂)

1. 서론

어느 한 작가의 누정시에 대한 연구는 적어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되어 그 작가의 시세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집에 전하는 누정시가 일정 분량이 되는 작가일 경우 그 작가의 누정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적지 않으며, 아직 연구가 진행되는 않은 작가의 경우에는 앞으로 연구될 가능성 또한 크다. 이는 누정시에 대한 연구 또한 만시에 대한 연구나 유배시에 대한 연구처럼 한 작가의 시세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연구가 모이면 동시대 문인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 또한 포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그러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한 연구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본고에서 곤륜 최

창대(1669~172)의 누정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최창대는 약천 남구만(1629~1711)을 이어 소론의 영수로 활약한 명곡 최석정(1646~1715)의 아들로 소론계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이다. “최창대는 일찍이 문장으로 이름이 났는데, 체재(體裁)가 균정(均停)하고 사리(辭理)가 구도(俱到)하여 박세당·김창협 등 몇 사람과 서로 경쟁할 수 있다고 한다.”¹⁾고 할 만큼 당대에 그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문집 『곤륜집』에 수록된 시는 527제 712수인데, 필자가 누정시로 분류한 시는 45제 54수이다. 따라서 최창대의 누정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여겨진다.

21세기에 들어 최창대의 문학 관련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²⁾ 선행 연구 중 특히 경서율의 『곤륜 최창대의 기행시 연구』는 일면 필자가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누정시의 내용을 일정부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최창대의 누정시 상당수가 유람을 하면서 읊은 것이기에 이 역시도 기행시에 포함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서율의 연구는 최창대의 금강산 기행, 호남 기행, 북관 기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가 누정(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게다가 본고는 최창대의 누정시만을 대상으로 하여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 최창대의 누정시가 갖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연구 방향과 주제도 서로 다르다 하겠다.

1) 『숙종보필정오』 46년 경자(1720) 4월 22일. ‘전 홍문관 부제학 최창대의 줄기’: “昌大早以文章名, 體裁均停, 辭理俱到, 可與朴世堂·金昌協數人並駕云.”

2) 김영주, 『곤륜 최창대의 수사론 연구』, 『동방한문학』 24, 동방한문학회, 2003; 성범중, 『곤륜 최창대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4, 한국한시학회, 2010; 권진욱, 『곤륜 최창대의 문장론 연구』, 『동양고전연구』 73, 동양고전학회, 2018; 김묘정, 『곤륜 최창대의 교유시 연구 - 지식인들과의 교유 양상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6-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경서율, 『곤륜 최창대의 기행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누정에 대한 개념으로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누정이란 누각과 정자의 약칭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누정조에서는 누(樓), 정(亭), 당(堂), 대(臺), 각(閣), 현(軒), 청(廳), 관(館), 관(觀), 방(房)등을 범칭한 개념”³⁾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누정시는 누정을 창작 공간으로 하여 누정의 경물과 관련된 정서를 형상화한 시라고 요약 정의할 수 있다.⁴⁾ 누정시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크게 시기, 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한·중 비교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⁵⁾

누정문학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통해 17세기까지의 누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세기까지 관영(官營)의 공간에 머물던 누정과는 달리 16세기에는 사립이나 은자들의 집단적 중심지 내지는 사영(私營)으로까지 기능이 확대되어 가며 문화 창조의 중심이 중앙의 관학으로부터 지방 사립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16세기 누정문학은 정치적 혼란과 사립의 자기 정립 과정에서 더욱 융성하게 되었으며 낙향하거나 은둔한 이들의 이념적, 문학적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다.⁶⁾ 그리하여 16세기의 누정문학은 엄숙한 도학적 분위기가

3) 박준규, 『韓國의 樓亭攷』, 『호남문화연구』 17,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7, 2쪽.

4) 이강렬, 「오음 윤두수의 누정시에 나타난 시공간 인식」, 『한문학논집』 24, 근역한문학회, 2006, 28쪽.

5) 지면 관계상 선행연구를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으므로,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적기로 한다. 김동준, 「16세기 누정한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송기섭, 「천안의 누정시 고찰」, 『한문고전연구』,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 정무룡, 「송순 누정시 연구」, 『인문학논총』 14,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류려택, 「한중 양루 소재 누정시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6) 이강렬, 앞의 논문. 31쪽. 참고로 16세기 문인의 누정시에 대한 연구를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화는 「퇴계시에 나타난 누정문화 연구」(『한국사상과 문화』 4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33~65쪽)에서 이황(1501~1570)에게 누정은 1. 학문의 문화 공간, 2. 소통의 문화 공간이었으며, 문화적 감성을 통해 본 누정시의 세계는 1. 聖代의 希願, 2. 眞樂의 志向, 3. 民福의 실현으로 분석하였으며, 이강렬은 「오음 윤두수의 누정시에 나타난 시공간 인식」(25~56쪽)에서 윤두수(1533~1601)의 누

지배하던 시대에 시적 개성과 다양한 정감을 시창작에 도입하여, 17세기 한시 창작에 영향을 주게 된다.⁷⁾ 17세기에 들어서면 정치현실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누정을 세속과 격절된 개인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17세기 후반부터는 누정을 개인적 일상을 즐기는 공간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보였던 정치현실과의 대립적 설정이 약화되고 자락(自樂)의 공간이 강조된다.⁸⁾

필자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분석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반에 걸쳐 활동한 최창대의 누정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만, 최창대의 누정시를 그 내용만 가지고 분석하고 특징을 찾다보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특히 17세기 이후 문인들의 그것과 차별화된 면모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⁹⁾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내용적인

정에 대한 인식을 1.樂道와 求道の 時空間, 2.兼善과 再起의 時空間 3.憧憬과 欽慕의 時空間(① 蘇軾의 仙趣 憧憬 ②歐陽修에 대한 人格의 欽慕)으로 분석하였다.

- 7) 박종우, 「16세기 누정의 공간적 특성과 누정제영의 문학사적 의미 - 호남지역 누정제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281쪽. 박종우는 16세기 누정의 공간적 특성을 '1.物과 我의 소통 공간 : 자연 경물과의 심미적 교감, 2.세속과 탈속의 漸移 공간 : 현실적 고민의 낭만적 정화, 3.개인과 집단의 연대 공간 : 동료 의식의 결집과 제고'라고 정리하였다. (264~276쪽)
- 8) 안세현, 「조선후기 누정기의 특징적 면모」,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149쪽.
- 9) 송기섭은 「백곡 김득신의 누정시 연구」(『한문고전연구』 3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197~224쪽)에서 金得臣(1604~1684)의 누정시의 특징을 1.시상을 발하기 위한, 2.수심을 달래기 위한 공간, 3.정자 주변의 풍경을 즐기기 위한, 4.이별과 만남의 공간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심권은 「삼연 김창흡의 누정시 연구」(경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22~70쪽)에서 김창흡(1653~1722)에게 누정은 1.역사 인식 공간으로서의 누정, 2.인물 추모 공간으로서의 누정, 3.사상 성찰 공간으로서의 누정, 4.시문 창작 공간이었으며, 그의 누정시는 그의 역사적 비판 의식에 대한 발로로 작용했다고 분석하였다. 최창대의 누정시는 내용면에서만 본다면 김창흡보다는 김득신의 그것과 더욱 가깝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요소 이외에 최창대가 누정시를 창작한 시기와 그 창작배경에도 주목하여 최창대에게 누정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최창대가 그 이전의 문인들의 누정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악부시라는 형식으로 누정시를 창작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악부시로 지은 시 두 수를 별도로 살펴보며 그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곤륜의 누정시 목록과 그 창작 배경

『곤륜집』의 간기(刊記)에 의하면, 초고가 대부분 산실되고 겨우 부 4수, 시 1500여 수, 문 400여 수만 남았는데, 그중 부 2수, 시 712수, 문 227수를 선정하여 『곤륜집』을 간행하였다고 한다.¹⁰⁾ 『곤륜집』에는 최창대가 15세(1683년)에 지은 시 <冬雨 步韓孟聯句韻>부터 47세(1715년)에 지은 <洪正萬選輓>까지 43년 동안 지은 시 527제 712수가 권1부터 권5까지 시체(詩體) 구분 없이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그 해에 창작된 첫 시에 그 해의 간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 그 창작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필자가 ‘누정시’로 분류한 시는 45제 54수이다. 먼저, 『곤륜집』에 수록된 연도별 편수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며 동시에 누정시의 목록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그 창작 배경(창작시기, 동행자, 장소 등)을 간략히 정리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10) 崔昌大, 『昆侖集』, 『刊記』: “草藁多所亡失, 而詩律之失尤多. 存者僅賦四首, 詩一千五百餘首, 文四百餘首. 選者賦二首, 詩七百十二首, 文二百二十七首.”

〈표1〉 『근원집』 『시』(권1~권5) 수록 시 편수 및 누정시 목록¹¹⁾

권	간지	연도	나이	시제	편수	누정시		詩體	편수	
권1	계해	1683	15세	2	2	-				
	병인	1686	18세	1	1	-				
	정묘	1687	19세	2	2	-				
	무진	1688	20세	4	7	-				
	기사	1689	21세	24	25	①	<蒼槐臺>		五古	1
							<江夕 登侯家亭子>		七律	1
	경오	1690	22세	57	65	②-2	②-1 <龍湖江閣對雨>		七律	1
							<敬次家君觀射君子亭韻>		七律	1
							<夜登平遠堂>		五律	1
							<詠平遠堂>		五律	1
							<閣夜 同道長賦>		五律	1
							<登北樓>		五律	2
							<超然臺歌>		樂府	1
							<登平遠堂>		五律	1
<登四僊臺>							五律	1		
<將出寺上東臺>							五古	1		
<道長將去 攜上平遠堂>		七絕	1							
<又賦古體三首 書贈>		五古	3							
소계				90	102					

11) 필자가 누정시로 선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의 제목에 ‘樓’, ‘亭’, ‘堂’, ‘臺’, ‘閣’ 등 누정이 들어가 있어 그 시가 누정을 창작 공간으로 하여 누정의 경물과 관련된 정서를 형상화한 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시, 그 시에 이어 <又……>라는 제목으로 이 역시 그 앞에 편차된 누정시의 연속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시, <寄題……亭>라는 제목으로 그 누정의 이름으로 시를 지어 보낸 시 역시 누정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제목에는 누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의 내용 상 누정에서 창작된 시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들도 간혹 있기는 하나 그러한 시는 누정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필자는 저자(최창대)가 시의 제목에 누정을 넣지 않은 것은 그 시의 초점이 누정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고 추측했기 때문이며, 보는 관점에 따라 그것을 누정시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면 차라리 누락시키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권2	신미	1691	23세	89	112	③-1	<步虛閣>*	五律	1
						③-2	<問月亭歌 寄李山人擬天>	樂府	1
						③-3	<白雲樓>	五古	1
							<泛波亭>	五古	1
							<濃香亭 夜飲聞歌>	七絶	1
							<雨宿濃香亭>	五律	1
							<雨坐濃香閣>	七律	1
							<微雨登樓>	七律	1
							<同舅氏登城譙>	七律	1
							<同諸君登樓>	七律	2
							<海山亭 和主人翁 尹公坪宰高城>	七律	1
<海山亭>	七律	1							
<題歇惺樓>	七絶	1							
임신	1692	24세	6	6	-				
계유	1693	25세	10	14	④	<寄題高象卿效鼎亭子>	五古	1	
갑술	1694	26세	1	3		-			
을해	1695	27세	10	11		-			
병자	1696	28세	1	1		-			
정축	1697	29세	16	21	⑤	<登花石亭>	五律	1	
소계			133	168					
권3	무인	1698	30세	34	38	⑥	<槐亭小坐>	五律	1
							<廣寒樓 次簡易韻>	七律	1
	기묘	1699	31세	8	8		-		
	경진	1700	32세	79	117	⑦	<登慶陽樓>	五律	1
							<樂民樓 示通判崔明舉寔>	七律	1
<樂民樓>							五絶	1	
소계			121	163					
권4	신사	1701	33세	16	22	⑧	<元春上旬 登南城樓>	七律	1
	임오	1702	34세	22	34		-		
	계미	1703	35세	29	44	⑨	<上元前夕 踏雪訪載大于雙梧亭 仍宿焉 癸未>	五律	4
							<又賦>	七律	2
							<又得一絶>	七絶	1
갑신	1704	36세	5	10		-			

권4	을유	1705	37세	6	9	-			
	병술	1706	38세	7	11	-			
	소계			85	130				
권5	정해	1707	39세	28	48	-			
	무자	1708	40세	29	35	⑩	<月夜攜益之諸君 訪天柱寺 仍登西將臺>	七律	1
							<西將臺>	五律	1
	기축	1709	41세	10	21	-			
	임진	1712	44세	7	10	⑪	<陪家君到岫雲亭 敬次>	七絶	2
	계사	1713	45세	0	0	-			
	갑오	1714	46세	3	3	-			
	을미	1715	47세	21	32	⑫-1	<平朝呼船 乘潮泝上 少憇爛柯亭 卽愼氏來蘇亭小構 眺詠良久 又登船至臨津 取陸路>	五律	1
							<來蘇亭>	七絶	1
							⑫-2	<水僊亭 敬次家君韻 奉主人兄 從氏昌演 時宰天安>	七律
<水僊亭 用板上韻 答範姪勉其史學>								五絶	1
소계			98	149					
총계	527제	712수				(누정시 45제 54수)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누정시가 창작된 해는 모두 열두 해이다. 그 시가 창작된 시기와 그 누정에 가게 된 계기 및 특이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최창대(『근륜집』, 한국문집총간 183)의 행적은 그뿐만 아니라 부친 최석정(『명곡집』, 한국문집총간 153-154), 숙부 최석항(『손와유고』, 한국문집총간 169), 외삼촌 이인엽(『회와시교』, 한국문집총간 172)과 그의 아들 이하곤(『두타초』, 한국문집총간 191) 등의 행적과도 부분부분 밀접한 관련이 있다.¹²⁾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논할 최창대 누정시의 특징의 근거가 되기도 할 것이다.

12) 해당 행적은 각 문집의 내용과 한국문집총간 각 문집의 해제를 참고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① 기사년(1689, 21세) : 2제 2수 (부친 최석정 안동부사)

최석정은 2월 2일 안동 부사로 특출 되고¹³⁾ 6월 체임되는데, 최창대는 이 기간에 부친 최석정의 임소인 안동에 다녀온다. 누정시 <蒼槐臺>와 <江夕 登侯家亭子>는 최창대가 부친의 임소에 가는 길에 지은 <崇善驛村夜吟 時赴家君安東任所>와 인현왕후 폐위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친국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도중 5월 5일 사망한 박태보를 애도하는 시 <悲朴定齋泰輔> 사이에 편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누정시는 안동으로 오가는 길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경오년(1690, 22세) : 1제 1수 + 11제 14수 (부친 최석정 연안부사)

최석정은 1690년 여름 연안 부사로 부임하여 이듬 해 여름 파직된다. 이 시기에 지은 최석정(1646~1715)의 시는 『명곡집』 권4 『鹽城錄』(庚午夏 赴延安任 受由往來京中 明年夏遞 延安號鹽城)에 수록되어 있다, 이 때 최창대도 함께 따라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지은 시 67제 73수가 권1 경오년 부분에 편차되어 있으며, 누정시도 11제 14수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②-1 <龍湖江閣對雨>에 “春光千里繞樓臺”(봄빛이 천리를 와 누대를 감싸네)라는 내용에서 이 시는 연안으로 가기 전인 봄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를 제외한 나머지, 즉 ②-2는 모두 연안에 갔을 때 지은 것이다. 특히 오음 윤두수(1533~1601)가 연안 부사로 있을 때 창건한 평원당¹⁴⁾에 몇 차례에 걸쳐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지은 시가 7수 편차되어 있다. 이 당시에는 도장 홍세태(1653~1725)도 한동안 같이 머물러 있었다. 당시 홍세태가 지은 시는 『유하집』 권2에 수록되어 있다. 연안에서 지은

13) 『수종실록』 15년 기사(1689) 2월 2일.

14) 평원당의 창건과 건립 취지 등에 대해서는 尹斗壽, 『梧陰遺稿』 권3, <延安志序>, <平遠堂上樑文>; 李珥, 『栗谷全書』 권13 『記』, <平遠堂記> 참조.

누정시 중에는 <超然臺歌>도 있는데 악부시라는 특징을 가진다. 악부시로 된 누정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③ 신미년(1691, 23세)

: 2제 2수 + 11제 12수 (가을 외삼촌 이인엽과 금강산 유람)

③-1 <步虛閣>*이 신미년(1691)에 편차되어 있는데, 숙부 최석항(1654~1724)의 문집 『손와유고』 권2와 권5에는 기사년(1689) 부분에 편차되어 있다. 『손와유고』에는 최석항이 기사년 8월 28일 큰형 최석진과 조카 최창대와 함께 삼각산 중흥사에 유람을 가서 지은 시가 상당수 수록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곤륜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최창대의 시 15수가 병기되어 있다.¹⁵⁾ 특히 권5에 편차되어 있는 <보허각>이란 제목 아래 최창대의 오언율시 5수도 함께 병기되어 있는데 『곤륜집』에 수록된 시는 그중 제4수이다.¹⁶⁾ 『곤륜집』에는 1689년에 <訪重興寺 贈玉海上人>이 편차되어 있다. 따라서 <보허각>은 1691년이 아닌 1689년에 편차되어야 맞는다. ③-2 <問月亭歌 寄李山人挺天>은 내용 중에 “隱几五月松風起”(궤에 오월의 송풍을 감취두었네.)라는 표현이 있어 5월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악부시라는 특징을 가진다. 최석항의 『손와유고』 권3의 신미년 부분에 <寄題李太素問月亭>이 수록되어 있다.

③-3의 11제 12수는 1691년 가을 막내외삼촌[季舅] 이인엽(1656~

15) 崔錫恒의 『損窩遺稿』 권2(七言)에는 <秋日游重興 八月二十八日 陪伯氏携昌大 訪重興寺留宿. 翌日 過文殊菴 由蕩春臺而還>에 칠언율시 6수, <巴陵官居>에 칠언율시 1수 그리고 권5(五言)에는 <秋日游重興>에 오언절구 2수, <道峯 用昌大韻>에 오언절구 2수, <步虛閣>에 오언율시 5수 등 최창대의 시 16수가 병기되어 있다. 이 중 <步虛閣> 제4수를 제외한 나머지 15수는 최창대의 『곤륜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시이다.

16) 그런데, 『곤륜집』에 수록된 것은 ‘一水如天通, 眞源了莫窮, 半空飛作雪, 初日照成虹, 尺步炎寒變, 羣崖氣色同. 王孫亭樹古, 山柱長新叢.’인데 『손와유고』에는 제1구의 ‘如’가 ‘與’로, 제6구의 ‘氣色’이 ‘散落’으로 되어 있어 문자의 출입이 있다.

1710)과 금강산 유람을 하면서 지은 시이다. 이 금강산 기행은 과거를 포기하고 지내던 그에게 현실에서의 고뇌와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였을 것이다.¹⁷⁾ 그리고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반가운 일가친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유람을 하며 지은 시에 앞서 편차된 <送伯舅李公寅燾之任杆城>을 통해 큰외삼촌[伯舅] 이인소(1637~1698)가 1691년 강원도 간성 군수로, <送戚大父尹公坪出宰高城>을 통해 이인엽의 외삼촌인 윤희이 강원도 고성 군수로 부임해 갔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이들을 찾아뵙고 이들과 나누는 시(<到水城 奉伯舅>, <海山亭 和主人翁 尹公坪宰高城> 등)도 문집에 편차되어 있다. 이인엽의 『회와시고』 『東遊錄』(辛未秋 作觀行於杆城 仍游楓岳 崔兄孝伯亦從往)은 금강산 유람 당시의 시만을 모아놓은 것으로, 여기에는 77제 100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중 19제 21수의 시가 누정시이다. 『곤륜집』 권2에는 이 당시에 지은 시 65제 80수가 편차되어 있는데 필자는 그중 10제 11수를 누정시로 분류하였다.¹⁸⁾ 곤륜은 금강산을 기행과 풍류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금강산의 진경(實景)과 자신의 심정을 시로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기행문학의 새로운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는데,¹⁹⁾ 누정시에도 그러한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④ 계유년(1693, 25세) : 1제 1수 (고효정의 요청으로 누정시 창작)

이 해에 창작된 <寄題高象卿效鼎亭子>은 최창대가 그 정자에 직접 가서 지은 시는 아니다. 권12 「書」에 수록되어 있는 <答高象卿 癸酉>에

17) 경서율(2019), 앞의 논문, 33쪽.

18) 이인엽의 시 제목에 등장하는 ‘杉亭’, ‘蓮堂’, ‘觀海亭’, ‘六松亭亭’, ‘詠月樓’, ‘四舍亭’, ‘山映樓’는 최창대의 시제목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것과 시의 내용을 통해 최창대의 시 중 <杉亭浦>와 <觀海> 6수는 누정시로 분류할 수도 있을 듯싶다.

19) 경서율(2019), 앞의 논문, 31쪽.

“작년에 사중(思仲) 심제현(沈齊賢)이 가림(加林)에 있을 때 편지를 통해 ‘죽하께서 새로운 정자를 건립하시고, 저의 시를 얻어 벽에 걸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²⁰⁾라는 내용이 있다. 가림은 충청도 임천군(林川郡)의 백제 때 이름이다. 그리고 이 시에 앞서 가림으로 돌아가는 심제현을 송별하는 시 <送思仲還加林>가 편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를 지어 심제현 편에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정축년(1697, 29세)

： 1제 1수 (외사촌 이하곤과 송도, 박연폭포 등을 유람)

이 해 가을에는 익지(益之) 이하영(李夏英), 제대(載大) 이하곤(李夏坤)과 함께 송도와 박연폭포 등을 유람하였는데, 『곤륜집』에는 이때 지은 <同益之李弟載大夏坤遊松都朴淵> 2수 등 12제 13수의 시가 편차되어 있다. 이하영은 최석정이 연안 부사로 있을 당시 그의 문하생이 되었으며,²¹⁾ 최창대와는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곤륜집』에는 권1-5까지 익지와 나눈 시 19제 27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권12에는 그에게 보낸 서신 7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하곤(1677~1724)은 이인엽의 아들이며, 옥오재(玉吾齋) 송상기(1657~1723)가 그의 장인이다. 이하곤의 『두타초』 권1에도 이 당시에 지은 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金川途中別崔兄孝伯昌大>을 보아 박연폭포를 유람한 이후 금천에서 헤어져 각자 유람을 계속한 듯하다. 최창대는 이 당시 파주를 지나며 화석정에 들러 <登花石亭>을 읊었다. 화석정은 율곡 이이가 선조(先祖)의 정자를

20) 崔昌大, 『昆侖集』 권12 『書』, <答高象卿 癸酉>(1693) : “前歲, 思仲在加林, 有書云足下新起亭子, 欲得僕詩而揭諸壁.”

21) 崔錫鼎, 『明谷集』 권4 『鹽城錄』, <夜坐 示問字諸生 三首>○李夏英, 李世城兩童子從學>

중수한 것으로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란 가던 선조가 한밤중에 강을 건너기 위해 이 정자를 태워 불을 밝혔는데, 1673년에 이이의 종증손이 증건하였다.²²⁾ 이러한 사실이 고려된 때문인지 이 시에는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⑥ 무인년(1698, 30세) : 2제 2수 (암행어사로 호남 순찰)

최창대는 3월 암행어사가 되어 호남 순찰을 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지은 시들은 ‘백성의 삶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들의 현실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시의 깊이를 더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²³⁾ 이 시기에 지은 시 20제 21수가 편차되어 있으며 애민의식이 담겨 있는 시가 여럿 있는데, 누정시 <槐亭小坐>와 <廣寒樓 次簡易韻>에서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⑦ 경진년(1700, 32세) : 3제 3수 (북평사로 북관지역에서 근무)

최창대는 6월 북평사가 되어 평안도와 함경도 등 북관지역에서 관직생활을 한다. 문집에는 이 당시에 지은 시 63제 85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금강산을 유람하며 지은 시와 더불어 가장 많은 분량이다. 최창대는 이 시기에 북관의 광활하고 웅장한 산하, 험하고 혹독한 자연환경을 포착하여 생동하게 묘사하는가 하면 당대 현실의 정치적 문제와 다양한 시대적 난제도 두루 시로 담아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²⁴⁾ 또한 이 시기의 시는 함경도 관찰사로 있으며 지은 다수의 시와 저술을 통해 북새(北塞)문학을 창작한 남구만의 뒤를 잇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⁵⁾ 이 시기에 창

22) 화석정에 대한 내력은 宋時烈, 『宋子大全』 권145 「記」, <坡州花石亭記> 참조.

23) 경서율(2019), 앞의 논문, 60쪽.

24) 경서율(2019), 위의 논문, 82쪽.

작한 누정시는 <登慶陽樓>, <樂民樓 示通判崔明舉寔>, <樂民樓> 3수인데 이 시에는 누정의 아름다운 풍광과 낙민루에서 느끼는 당시의 평화로운 모습이 담겨져 있다.²⁶⁾

⑧ 신사년(1701, 33세) : 1제 1수 (북평사로 북관지역에서 근무)

<元春上旬 登南城樓>는 최창대가 북관지역에서 새해를 맞은 정월 초에 남성루에 올라 읊은 시이다. 이 시를 포함한 1701년 앞부분에 편차된 9제 9수의 시 역시 최창대가 북평사로 있으면서 북관지역에서 지은 시로 분류할 수 있다.

⑨ 계미년(1703, 35세) : 3제 7수 (외사촌 이하곤이 있는 쌍오정 방문)

최창대는 정월대보름 전날 밤 충청도 진천의 쌍오정에 있는 이하곤을 방문하여 <上元前夕 踏雪訪載大于雙梧亭 仍宿焉 癸未> 4수를 읊고 이어서 <又賦> 2수와 <又得一絕>를 지었다. 이 당시에 이인엽은 쌍오정에 같이 있지 않아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표현돼 있다. 쌍오정은 이인엽이 창건하였으며, 쌍오정이란 이름은 이인엽의 할아버지인 이시발(李時發)의 호 벽오(碧梧)와 증조부 이대건(李大建)의 호 오촌(梧村)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²⁷⁾ 이하곤은 후에 쌍오정을 도연명의 시에서 뜻을 취해 ‘열운정(悅雲亭)’으로 개명하였다.²⁸⁾

25) 경서율(2019), 위위 논문, 83쪽.; 성당제, 『약천 남구만의 고토 회복의지 - 변방 음영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10, 우리한문학회, 2004.

26) 낙민루의 창건과 건립 취치 및 의의에 대해서는 申欽, 『象村集』 권23 『記』, <樂民樓記> 참조.

27) 『쌍오정 터』,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28) 李夏坤, 『頭陀草』 冊14 『雜著』, <悅雲亭記>; “亭始名雙梧, 其後先君自沁都歸, 有會于陶隱居詩語, 乃改以今名, 卽悅雲是也.”

⑩ 무자년(1708, 40세) : 2제 2수 (이하영, 최수범과 남한산성 유람)

익지 이하영, 군서(君敍) 최수범(崔守範) 등과 함께 남한산성에 갔다가 천주사, 서장대, 국청사(國淸寺)에 들러 지은 시 8제 10수가 무자년 부분에 편차되어 있다. 최수범은 이하곤의 매제, 즉 이인엽의 사위이다. 이 중 누정시는 2수로 <月夜攜益之諸君 訪天柱寺 仍登西將臺>와 <西將臺>이다.

⑪ 임진년(1712, 44세) : 1제 2수 (부친 최석정과 수운정 방문)

부친을 모시고 신여철(1634~1701)의 정자인 수운정에 올라 부친의 시에 차운한 <陪家君到岫雲亭 敬次> 2수가 임진년 부분에 편차되어 있다. 신여철에 대한 제문 <判書申汝哲致祭文 辛巳>(1701)이 권15에 수록되어 있다. 최석정의 『명곡집』 권6 「靑郊錄」에 1710년 수운정에서 읊은 시 두 편(<小坐岫雲亭 卽申判書汝哲郊亭>, <九月十三日 携申生宗夏庶從錫華 復游岫雲亭>)이 수록되어 있지만, 1712년에 지은 최석정의 시는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⑫ 을미년(1715, 47세)

: 2제 2수 + 2제 2수 (부친 최석정과 천안 수선정 방문)

⑫-1은 내소정에서 지은 시 2수(<平朝呼船 乘潮泝上 少憇爛柯亭 卽愼氏來蘇亭小構 眺詠良久 又登船至臨津 取陸路>, <來蘇亭>)이다. 호곡 남용익(1628~1692)의 시 <來蘇亭 戲書壁上 示主人愼伯順 亭在坡州>²⁹⁾을 통해 내소정의 주인은 신백순이란 사람이며 파주에 있는 정자임을 알 수 있다. 내소정이란 명칭에서 ‘來蘇’는 ‘後來其蘇’의 준말로, 『서경』 <仲虺之誥>의 “우리 임금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임금님이 오셨으니

29) 南龍翼, 『壺谷集』 권6 「七言絕句」, <來蘇亭 戲書壁上 示主人愼伯順 亭在坡州>

우리는 이제 살아났다.”(奚予后, 后來其蘇.)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이다.

⑫-2는 봄에 부친 최석정을 모시고 천안부사로 있는 최창연을 방문한 후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부친의 시를 차운해 지은 시 <水僊亭 敬次家君韻 奉主人兄 從氏昌演 時宰天安>와 수선정현판의 운을 이용해 지은 시 <水僊亭 用板上韻 答範姪勉其史學>이다.³⁰⁾ 최창연은 최창대의 큰아버지 최석진의 차남이다.³¹⁾

3. 일가친지를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 누정

최창대는 1694년 26세에 별시 병과에 급제하며 관료에 들어서게 된다. 이 해는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몰려나고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은 해이다. 그가 한동안 과거를 포기하고 지낸 데에는 1689년 기사환국 이후 남인이 정권을 차지고 있던 당시의 정국 상황이 주된 이유이기도 하였겠지만 기사년에 인현왕후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던 장인 오두인이 화를 입고 사망한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대는 관직에 나아가기 전까지 부친 최석정의 임소(안동, 연안)에 따라 가거나, 이인엽과 함께 금강산 유람을 가는 등 기행을 통해 조국의 산하를 즐기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혼란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³²⁾ 45제 54수의 누정시 중 3/5 가량인 28제 32수가 그 기간 동안에 지어진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그러함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누정시에서는 그러한 현실

30) 수선정에 대해서는 李恒福(1556~1618)의 『白沙集』 권2에 수록되어 있는 <天安水仙亭記> 참조.

31) 朴世堂, 『西溪集』 권12 『誌銘』, <完陵君崔公墓誌銘>; “男長錫晉縣令 …… 縣令四男, 昌憲生員, 昌演司議, 昌敏, 昌億.”

32) 경서율(2019), 앞의 논문, 33쪽.

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나 그러한 시대 상황으로 인한 침울함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앞 장을 통해 최창대의 누정시 창작시기와 그 창작 배경을 보면, 최창대가 누정을 찾는 주된 목적은 그곳이 자신의 가족·친척·지우 등 일가친지(一家親知)를 만나러 가서 볼 수 있다거나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그리고 실제로 최창대의 누정시는 그가 암행어사로 호남순찰을 갔을 때와 북평사로 북관지역에 있을 때 지어진 6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부친 최석정, 숙부 최석항, 외삼촌 이인엽, 외사촌 동생 이하곤 등의 일가친척이나 홍세태, 이하영 등 지우와 함께 하며 지은 것들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필자는 최창대에게 누정은 일가친지를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는 최창대의 시세계 특징 중 하나로 ‘친인척과의 우애와 충정’이 꼽힌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³³⁾ 물론 그 내용만으로 본다면 최창대의 누정시에서도 누정은 소통의 공간, 시문 창작의 공간, 자연경관을 즐기는 공간, 풍류를 즐기는 공간, 이별과 만남의 공간 등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16세기 누정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엄숙한 도학적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최창대는 1690년(22세) 부친의 임소인 연안에 따라 가 있으면서 한동안 홍세태와 함께 유람을 다녔다. 다음 시는 홍세태가 떠나갈 무렵 평원당에 올라 이별의 아쉬움을 적은 시로, <道長將去 攜上平遠堂>에 이어 글로 써 준 시 <又賦古體三首 書贈> 3수 중 제 1수³⁴⁾이다.

33) 성범중은 『곤륜 최창대의 삶과 시세계』에서 최창대의 시세계를 ‘1) 돈독한 교유와 우정의 확인(① 사회적 교유와 우정의 지속 ② 친인척과의 우애와 충정), 2) 여행 경험과 산하미의 발견, 3) 관료 경험과 애민정신의 체현, 4) 한거와 자유로운 삶의 추구’라는 4가지 측면으로 개괄한 바 있다.

34) 崔昌大, 『昆侖集』 권1, <又賦古體三首 書贈>

置酒江海上	강해가에 술자리 마련하였는데,
親愛將我違	친애하는 벗 나를 떠나려 하네.
離別固多懷	이별은 본래 정회가 많으니,
同心獨何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유독 어찌 드물겠는가.
相見在異方	다른 곳에서 서로 만나니,
娛樂安窮時	아무리 궁한 때라도 즐겁고 편안하다오.
… 중략 …	
中路多苦寒	혹독한 추위에 길에서 얼마나 고생할지,
念子無兼衣	그대 겨입을 옷 없을까 걱정되네.
有往不可留	가야만 하는 곳이 있어 붙잡을 수 없으니,
誰能不心悲	누군들 마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소.
惟當奉誠言	진실 된 말 받들어,
陽春以爲期	따뜻한 봄에 다시 만나길 기약하오.

홍세태는 중인계층의 인물이었지만 일찍부터 시재(詩才)가 뛰어나 사대부 문인들에게 높이 평가되며 사대부들과 교류를 가졌던 인물로, 최창대보다 16세 연상이었지만 이들은 망년지교를 맺어 나갔다. 이 시에는 이별의 슬픔과 추운 겨울 길 위에서 고생할 홍세태를 걱정하는 마음이 애절하게 담겨져 있지만, 따뜻한 봄에 다시 만날 기약으로 시적 분위기는 밝게 전환된다. 이 시에서는 누정이 만남과 이별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는 이 시에서 특히 5, 6구 “다른 곳에서 서로 만나니, 아무리 궁한 때라도 즐겁고 편안하다오.”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평소에 만났던 한양이 아닌, 황해도 연안에서 만나니 시대적 상황이나 당시 자신들의 어렵던 상황에도 그 모든 것을 잊고 즐거워하며 편안함마저 느끼게 된다. 그리고 지금의 그 공간이 그저 평원당일 뿐이다. 즉, 최창대에게는 그곳이 평원당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지우(知友)인 홍세태와 함께

히는 공간이기에 평원당은 그러한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최창대가 외삼촌 이인엽과 금강산 유람을 하다 도중에 함께 성 위의 망루에 올라 읊은 <同舅氏登城譙>³⁵⁾이다.

高樓迢遞絕塵埃 높이 솟은 누대는 속세를 저 멀리 벗어났고,
 霽後雲煙萬里開 비 갠 뒤 구름 안개 끝없이 펼쳐져 있네.
 九郡地臨滄海盡 이홉 고을은 푸른 바다 끝에 맞닿아 있고,
 羣山勢自白頭來 못 산세는 백두로부터 비롯되네.
 城譙日隱棲鴉定 성 위의 망루에 해가 지니 갈가마귀 깃들고,
 關塞風高候鴈哀 변방 가을의 거센 바람 드높으니 기러기 소리 슬프네.
 却喜同君桑落酒 그대와 함께 마시는 상락주에 즐거우니
 教人不上望鄉臺 사람으로 하여금 망향대에도 오르지 못하게 한다네.

최창대의 금강산 기행은 1687년 생원진사시를 합격하고 한동안 과거를 포기하고 지내야 했던 그에게 일면 현실에서의 고뇌와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속세를 벗어난 높은 누대에 올라와 바라보는 국토의 장엄함과 진경(眞景)에 감개하니 자신의 시름과 번뇌는 절로 잊게 된다. 하지만 가을의 거센 바람과 기러기 소리에 이내 가족과 고향이 그리워지려 한다. 그러나 외삼촌과 함께 미주(美酒) 상락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갖다보니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할 겨를과 생각조차 없어지게 된다. 이 시에서 누정은 국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외삼촌과 함께 맛 좋은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기도 하다.

35) 崔昌大, 『昆侖集』 권2, <同舅氏登城譙>

다음은 최창대가 1703년 정월대보름 전날 쌍오정에 있는 이하곤을 방문하여 읊은 <上元前夕 踏雪訪載大于雙梧亭 仍宿焉 癸未> 4수에 이어 지은 <又賦>³⁶⁾ 2수 중 제 1수이다.

樓因少睡獨移時 잠이 적어지니 누정에서 홀로 서성이다,
 剩取今宵景絕奇 유난히 빼어난 오늘밤 경치에 넉넉히 취하였네.
 四立雪山參倚柱 설산은 사계절을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하는 기둥 같고,
 孤明溪月照吟詩 홀로 밝은 시내의 달은 시를 읊는 이를 비추네.
 十年愁病成何事 십년의 수심 걱정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滿目林泉只可歸 임천을 한 눈 가득 담아 돌아갈 수만 있다네.
 寂寂燕居憂國念 적적하게 연거하며 나라일 걱정하다,
 登臨忽起渭陽思 정자에 올라오니 문득 외삼촌이 그리워지네.

쌍오정은 이인엽이 충청도 진천에 창건한 정자이다. 최창대가 1703년 새해를 진천에서 보낸 것은 부친 최석정이 당시 진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최석정은 1701년 장희빈이 저지른 인현왕후의 저주를 조사하는 옥사에서 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자를 올렸다가 진천으로 중도부처 당한다. 1702년 1월 방면된 이후 1703년 2월 영의정에 제수³⁷⁾ 되기까지 줄곧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는 최창대의 보통 누정시와는 달리 줄곧 다소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이것은 부친이 그 충정에도 불구하고 유배형에 처해졌던 당시의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이하곤이 있는 쌍오정을 찾아 그 빼어난 경치에 취해 보지만, 자신이 관로에 오른 지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데 도대체 어떠한

36) 崔昌大, 『昆侖集』 권4, <又賦>

37) 『숙종실록』 27년 신사(1701) 10월 1일. ; 『숙종실록』 28년 임오(1702) 1월 5일. ; 『숙종실록』 29년 계미(1703) 2월 11일.

일을 이루었는지 회의도 든다. 새해를 맞아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나라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최창대의 여타 누정시는 그곳의 풍경을 즐기거나 함께 한 사람과의 즐거운 시간을 시로 읊은 것이 대부분인데 이 시에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직접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만 하다. 하지만, 시의 끝맺음은 당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위양(渭陽)³⁸⁾ 즉, 쌍오정의 주인인 외삼촌 이인엽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의 누정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성찰의 공간이며, 일가친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공간인 것이다.

4. 자락(自樂)의 공간

: 악부시로 창작된 누정시 2수〈초연대가〉, 〈문월정가〉

최창대 누정시의 특징을 내용 말고 형식적인 면에서 그 특징을 찾는다면 그가 잡언체의 악부시로도 누정시를 지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다. 악부시로 된 누정시는 최창대 이전의 다른 문인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최석정(1646~1715)의 『명곡집』에 40여제, 김창협(1651~1708)의 『농암집』에 30여제, 김창흡(1653~1722)의 『삼연집』에는 140여제, 최창대와 함께 금강상 유람을 한 이인엽(1656~1710)의 『회와시고』 『동유록』에 19제의 누정시가 수록되어 있으나 악부시로 된 누정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홍세태(1653~1725)의 『유하집』에는 상당수의 악부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80여제의 누정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統

38) 渭陽은 춘추 시대 秦康公이 태자로 있을 적에 장차 본국인 쑤나라로 돌아가는 외삼촌 重耳, 즉 晉文公을 전송하였던 곳으로, 그 당시 강공이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읊은 노래가 <渭陽>이다. (『시경』 『國風·秦風』)

軍亭歌>(권3, 1700년작), <北登單于臺歌>(권4, 1705년작), <積翠臺歌>(권5, 1713년작), <棲雲閣歌>(권8, 1723년작) 4수가 잡언체의 악부시로 지어진 누정시이다.

안대회는 18세기 한시의 새로운 경향 중의 하나로 '개성의 추구하고 변화의 시도'를 제시하였다. 그러한 양상은 시의 내용이나 서정, 시체(詩體)의 선택, 작풍(作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는데, 악부시, 영사시(詠史詩)와 같은 특별한 형식의 시가 많은 작가들에 의해 선호되어 조선의 역사를 음영하고 독특한 자연풍토, 인정세태, 풍속생활을 읊은 작품이 출현한 것을 그 하나의 특징으로 꼽았다.³⁹⁾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악부시는 조선전기에는 간헐적으로 창작되다가 조선 중엽 이후부터 큰 발전을 이루어, 조선후기에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보여주며 가장 발전된 양식이라 할 수 있다.⁴⁰⁾ 최창대의 『근륜집』에는 40여제의 적지 않은 악부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잡언체의 악부시로 지어진 누정시 2수 즉, <超然臺歌>(권1, 1690년작), <問月亭歌>(권2, 1691년작)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18세기 한시의 새로운 경향이 최창대의 시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최창대의 기행시는 모의나 답습에서 탈피하여 건문한 사실과 자신의 정감을 개성적이고 진솔하게 드러내려는 경향을 추구하였다는 특징을 보이는데⁴¹⁾ 그러한 특징은 악부시 누정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1) <초연대가>

최창대는 1690년 부친 최석정이 황해도 연안 부사로 부임해 갔을 때

39)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37~48쪽.

40) 안대회, 『한국 악부시의 장르적 성격』, 『한국시가연구』 1, 1997, 122쪽.

41) 경서율(2019), 앞의 논문, 2쪽.

함께 따라가 있었다. 이 당시에 홍세태도 일정 기간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超然臺歌> 전후로 <閣夜 同道長賦>, <郡齋 同道長賦>가 편차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함께 초연대에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⁴²⁾

縹馬古城下	옛 성 아래 말고삐를 매어두고는
舉酒臨荒臺	술 들고 황량한 누대에 왔네.
飛蓬捲野起	쭈대는 들판에 널려있는데
慘澹悲風來	참담하고 슬픈 바람 불어오네.
…… (중략) ……	
君誦詩我側耳	그대는 시를 읊고 나는 곁에서 듣고 있는데,
青天晝陰鳥飛廻	푸른 하늘 돌연 어두워지니 새가 날아 돌아오네.
悲歌相向問千古	슬픈 노래로 서로를 향해 천고를 묻지만
古人不見今人哀	옛사람은 지금 사람의 슬픔을 보지 못하네.
…… (중략) ……	
人生一醉輕五嶽	인생은 한 번 취하면 오악도 가벼우니,
我有一壺將勸君	내게는 그대에게 권할 술 병 하나 있다네.
黃金擲盡買歡笑	황금을 다 던져서라도 즐거운 웃음을 사고 싶구나,
明日白髮那再少	내일 백발 어찌 다시 적어질 수 있겠는가.
…… (중략) ……	
不必登高興感慨	감개 일어나게 하려 높이 오를 필요 없다네.
朝朝走馬池上歸	아침마다 말 달려 지상(池上)으로 돌아간다오.

‘초연대’는 노자의 『道德經』 26장에 나오는 “雖有榮觀，燕處超然”(비록 영화로움이 보이더라도, 한가로이 처하며 그러함을 뛰어 넘는다)고 한 구절에서 ‘超然’이란 두 글자를 따서 명명한 것이라 한다. 누정으로서의

42) 崔昌大, 『昆侖集』 권1, <閣夜 同道長賦>, <超然臺歌>, <郡齋 同道長賦>

이 명칭은 蘇軾(1037~1101)이 지은 누대 ‘초연대’에서 비롯된다. 소식이 1076년 山東 高密의 태수로 있을 때 폐허가 된 누대를 중건하였는데, 그 때 마침 아우 蘇轍이 齊南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서 부를 짓고, 이 누대의 이름을 초연이라고 명명하였다.⁴³⁾ 소식은 “어떤 것이든 모두 볼 만한 데가 있다. 참으로 볼만한 데가 있다면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으니 꼭 이상하거나 신기하거나 웅대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어도 된다. 술 지게미를 먹거나 싱거운 술을 마셔도 모두 취할 수 있고, 과일이든 초목이든 모두 배를 불릴 수 있다. 이로써 유추하건대 내가 어디를 가든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⁴⁴⁾라며 자신이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동생 소철은 형 소식과 심심상인(心心相印)하여 그 누대를 ‘초연대’라 명명한 것이다.

위의 시는 전반부에는 당시 과거를 포기하고 연안에 와 있는 자신의 처지가 누대의 황량한 주변 환경과 맞물려 비애에 젖은 탓에 다소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하지만, 좋은 사람(홍세태)과 함께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지금을 즐기려 애쓰는 모습으로 인해 전반의 어두운 분위기는 감춰지게 된다. 최창대가 오른 초연대는 비록 주변에 축대가 너부러져 있는 황량한 누대이지만, 주변 환경이야 어찌되었든 그것을 초연하여 즐길 수 있음을 최창대는 초연대에서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함께 하는 좋은 사람이 있고, 그와 술을 마시며 시를 읊을 수 있는 지금이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하다. 그러하기에 내일이라고 백발이 다시 적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황금을 다 던져 즐거운 웃음을 사서라도 지금을 즐

43) 蘇軾, 『東坡全集』卷36, <超然臺記> : “方是時, 子弟子由, 適在濟南, 聞而賦之. 且名其臺曰超然, 以見子之無所往而不樂者, 蓋游於物之外也.”

44) 위의 글, “凡物皆有可觀. 苟有可觀, 皆有可樂, 非必怪奇偉麗者也. 哺糟啜醢, 皆可以醉; 果蔬草木, 皆可以飽; 推此類也, 吾安往而不樂.”

기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감개를 일어나게 하려 풍광 좋은 곳을 찾아 더 높이 오를 필요조차 없다. 최창대는 이러한 초연의 즐거움과 감흥을 절제되고 압축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시 형식보다는 잡언체로 된 악부시를 활용해 서슴없이 자유롭게 표출해 낸 것이다. 이 시에서 누정은 만남의 공간이고, 시 창작의 공간이고,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다. 또한 지우(知友)와 함께 하며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자락(自樂)의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2) 〈문월정가〉

〈問月亭歌 寄李山人挺天〉은 최창대가 신미년(1691) 문월정의 주인인 이정천에게 지어 보낸 작품이다. 최창대는 계미년(1703) 그의 죽음을 접하고 〈李懷德挺天輓〉⁴⁵⁾을 지었는데 거기서 “술 한 말에 백 편의 시를 짓는 분도 이제 가지었으니, 높은 문월정은 누런 먼지가 되겠구나.”라며 이백과 비견할 만한 이정천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라질 문월정을 안타까워하였다.

太白愛酒兼愛月	이태백은 술도 사랑하고 달도 사랑했다오.
有月輒進杯中物	달이 문득 잔 안으로 들어와 있네.
登樓搔首向青天	누대에 올라 머리를 긁적이며 푸른 하늘을 향해
忽復高歌問明月	갑자기 다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밝은 달에게 묻노라.
高歌未終人醉倒	높은 노래 소리 다 끝나기도 전에 사람은 취해 쓰러
	졌는데,
明月無言挂空闊	밝은 달은 말없이 빈 하늘에 걸려있구나.

45) 崔昌大, 『昆命集』 권4, 〈李懷德挺天輓〉: “一斗百篇今已矣, 高亭問月欲黃塵. 老來蘿石從吾好, 歸去淵明只許貧. 積禍摧心猶曠達, 沉痾消肺尙精神. 青天有月來依舊, 長憶當歌對酒人.”

自從采石騎鯨後
人間幾度看圓缺
…… (중략) ……

今人還見古時月
古人不在其誰哀
斗酒十千詩百篇
太白與我何如哉
澆酒招君欲酌君
碧雲不去魂徘徊
棄置勿言感慨事
今宵且盡東臆醉
盈虧往來不須問
明月何曾解人意
吾令吳質停玉斧
吾令姮娥羽衣舞
白兔跪捧所擣之藥丸
服之可以不死超千古
然後一醉酩酊三千秋

此外萬事徒悠悠
對酒當歌有明月
何必問鳳凰臺黃鶴樓

이태백이 고래를 타고 채석장에서 달을 낚은 이후부터,
인간은 몇 번이나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보았는가.

지금 사람은 아직 옛날의 달을 볼 수 있는데,
옛사람은 없으니 그 누가 슬퍼하는가.
술 만 말에 시 백편,
이태백과 비교해 나는 어떠한가?
술을 부어 그대를 불러내 술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구름은 혼을 배회하러 가지 않네.
감개한 일은 버려두고 말하지 말고.
오늘 밤도 동창이 밝도록 술을 마셔보자.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 물어볼 것 없다네.
밝은 달이 언제 사람의 뜻을 이해한 적이 있는가.
내 오질의 옥도끼 질을 멈추게 하고,
항아가 예상우의무를 추게 하리.
흰 토끼 꿇어 앉아 빵고 있는 약환,
그것을 먹으면 천년을 넘도록 죽지 않을 수 있다하네.
그런 후 한 번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취하면 삼천
년이라네.

이 외에는 만사에 아무 생각이 없다오.
술 마시며 노래 부를 때 밝은 달이 있는데,
봉황대니 황학루니 굳이 따질 필요 있겠는가.

문월정이란 이름은 이백의 시 <把酒問月>에서 유래한 것이다. 최창대
는 달과 관련된 이백의 이야기와 <把酒問月> 중의 시구를 적절히 응용
하고, 달과 관련된 옥질(吳質),⁴⁶⁾ 예상우의무(霓裳羽衣舞),⁴⁷⁾ 토끼가 빵

46) 吳質은 전설상의 仙人인 吳剛으로, 그의 자가 質이므로 오질이라고 칭한 것이다.

는 약환 등의 전설을 적절히 활용해 흥미롭게 문월정을 읊었다. 그런데 이백은 본래 “지금 사람은 옛날의 달을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의 저 달은 일찍이 옛사람을 비쳤으리.”[今人不見古時月, 今月曾經照古人]라고 읊었는데, 최창대는 오히려 “지금 사람은 아직 옛날의 그 달을 볼 수 있는데, 옛사람이 없으니 그 누가 슬퍼하는가.”라며 사고의 전환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보가 <飲中八仙歌>에서 “이백은 술 한 말에 백 편의 시를 쓴다.”[李白一斗詩百篇]라 하였는데, 자신은 그래도 술 만 말에 시 백 편은 쓴다면, 이백에게 제주(祭酒)라도 따라주고 싶다 한다. 하지만 달은 그저 자연의 이치대로 차고 기울기를 반복할 뿐 사람의 뜻을 이해해 준 적이 없으니 만사 제쳐두고, 세상일 개의치 말고 술 마시며 즐기면 그뿐인 것이다. 따라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를 때 밝은 달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으니 그곳이 이름난 봉황대니 황학루니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기존의 생각과 표현을 답습하지 않고 최창대 자신의 정감을 악부시를 활용해 개성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내었음을 이 시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시에서도 누정은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자락(自樂)의 공간이다.

이렇듯 <초연대가>와 <문월정가>에서 누정은 최창대 자신이 즐거움을 찾고 즐기는 자락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최창대는 그러한 즐거움과 감흥을 자유롭게 표출해 내기 위해 절제되고 압축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시 형식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형식인 잡언체로 된 악부시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누정은 현실과 단절된 낭만적, 환상적 공간 같은 색채를 풍기며 자락의 공간으로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는 효과까지

한나라 때 西河 사람으로, 일찍이 仙道를 배우다가 잘못을 하고 달 속으로 귀양 가서 항상 계수나무만 찍고 있다고 한다.

- 47) 당나라 현종이 도사 葉法善의 도술로 월궁에 올라가 보았는데, 월궁 항아들이 무지개같은 치마와 새털로 된 옷을 입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와서 그 곡조대로 霓裳羽衣曲과 霓裳羽衣무를 창작하여 그것을 양귀비에게 추게 하였다고 한다.

연게 된다.

5. 결론

누정시에 대한 연구는 한 작가의 시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하고, 혹은 시대에 따른 자연관의 변화 및 누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그러하기에 상당량의 누정시를 창작한 작가라면, 그러한 작가들의 누정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필자는 본고에서 당대에 그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은 인물이며, 문집에 45제 54수라는 적지 않은 누정시가 수록되어 있는 최창대의 누정시를 고찰하였다.

먼저 최창대가 누정시 전체를 창작 시기 및 그 창작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것을 근거로 최창대에게 누정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찾아보았다. 최창대의 누정시 창작시기와 그 창작 배경을 보면, 그 대부분이 부친 최석정, 숙부 최석항, 외삼촌 이인엽, 외사촌 동생 이하곤 등의 일가친척이나 흥세태, 이하영 등 지우와 함께 하며 지은 것들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최창대에게 누정은 일가친지(一家親知)를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에 들어서면 정치현실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누정을 세속과 격절된 개인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17세기 후반부터는 누정을 개인적 일상을 즐기는 공간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자락(自樂)의 공간이 강조된다.⁴⁸⁾ 이러한 면모는 최창대의 누정시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음으로 최창대가 그 이전의 문인들의 누정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

48) 안세현(2010), 앞의 논문, 149쪽.

있던 악부시라는 형식으로 누정시를 창작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악부시로 지은 시 두 편, 즉 <초연대가>와 <문월정가>를 살펴보았다. 최창대는 누정에서 느끼는 자신의 정감을 악부시를 활용해 좀 더 자유롭게, 모의나 답습에서 탈피한 개성적인 표현과 내용으로 시를 지었다. 여기에서 누정은 최창대에게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자락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18세기 한시의 새로운 경향 중의 하나는 개성의 추구하고 변화의 시도이며 그러한 양상은 시의 내용이나 서정, 시체의 선택, 작풍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⁴⁹⁾ 최창대가 악부시로 지은 누정시에서 그러한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최창대의 누정시는 17세기 후반의 누정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한시의 새로운 경향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후로 최창대와 동시대 또는 그 전후 세대 문인들의 누정시가 지속적으로 연구된다면, 서로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전 시대 혹은 다음 시대와는 다른 자연관 및 누정에 대한 변화된 인식 또한 더 분명해 질 것이라 여겨진다.

49) 안대회(1999), 앞의 책, 37~48쪽.

참고문헌

崔昌大, 『昆侖集』

南龍翼, 『壺谷集』

李寅燁, 『晦窩詩稿』

李夏坤, 『頭陀草』

李恒福, 『白沙集』

朴世堂, 『西溪集』

蘇軾, 『東坡全集』

宋時烈, 『宋子大全』

申欽, 『象村集』

尹斗壽, 『梧陰遺稿』

崔錫鼎, 『明谷集』

崔錫恒, 『損窩遺稿』

『숙중실록』

『숙중보궐정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경서울, 「근륜 최창대의 기행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1~92쪽.

권진옥, 「근륜 최창대의 문장론 연구」, 『동양고전연구』 73, 동양고전학회, 2018, 7~34쪽.

김묘정, 「근륜 최창대의 교유시 연구 - 지식인들과의 교유 양상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6-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183~211쪽.

김영주, 「근륜 최창대의 수사론 연구」, 『동방한문학』 24, 동방한문학회, 2003, 115~139쪽.

박종우, 「16세기 누정의 공간적 특성과 누정제영의 문학사적 의미 - 호남지역 누정제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255~284쪽.

박준규, 「韓國의 樓亭攷」, 『호남문화연구』 17,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7, 1~27쪽.

- 성당제, 「약천 남구만의 고토 회복의지 - 변방 음영시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10, 우리한문학회, 2004, 143~166쪽.
- 성범중, 「곤륜 최창대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4, 한국한시학회, 2010, 5~40쪽.
- 송기섭, 「백곡 김득신의 누정시 연구」, 『한문고전연구』 3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197~224쪽.
- 안대회, 「한국 악부시의 장르적 성격」, 『한국시가연구』 1, 1997, 121~145쪽.
-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1~397쪽.
- 안세현, 「조선후기 누정기의 특징적 면모」, 『동양한문학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143~174쪽.
- 이강렬, 「오음 윤두수의 누정시에 나타난 시공간 인식」, 『한문학논집』 24, 근역한문학회, 2006, 25~56쪽.
- 이심권, 「삼연 김창흡의 누정시 연구」,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78쪽.
- 이정화, 「퇴계시에 나타난 누정문화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4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3~65쪽.

ABSTRACT

A Study on Gollyun Choe Changdae's Arbor Poetry

Lee, Hwang-jin

This study is planned to consider the arbor poetry of Gollyun Choe Changdae (1669~1720), one of the key figures of Soron who worked actively in the late 17th century till the early 18th century and find the periodic meanings of his arbor poetry.

First, paying attention to the time when Choe Changdae created his arbor poetry and the background of his creation, this article has examined what the arbor meant to Choe Changdae. Considering the time when Choe Changdae created his arbor poetry and the background of his creation, we can see that most of the poems were written when he was with his family or relatives, including his father Choe Seokjeong, uncle Choe Seokhang, maternal uncle Lee Inyeop, maternal cousin Lee Hagon, or close friends like Hong Setae or Lee Hayeong. This fact allows us to conclude that for Choe Changdae, the arbor was space where he could see and be with his family or relatives.

Next, focusing on the fact that Choe Changdae created his arbor poetry in the form of Yue-fu poetry (樂府詩) which can be hardly found in arbor poetry written by previous literary persons, this paper has examined two pieces of poems, 〈Choyeondaega〉 and 〈Moonwoljeongga〉, written as Yue-fu poetry. Choe Changdae wrote his poems about the feelings he had in the arbor more freely with unique expressions and contents getting out of imitating or sticking to an old tradition using Yue-fu poetry. Here, the arbor was recognized by Choe Changdae as the space of Jarak (自樂) to find pleasure on one's own.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there was a noticeable trend that the arbor was regarded as space to enjoy everyday life personally, and the space of Jarak was stressed. One of the new trends of Chinese

poetry in the 18th century is to pursue one's personality and try new things, and this kind of aspect is found in various ways such as a poem's contents, lyricism, the choice of poetic styles, or writing styles. Part of that can be found in Choe Changdae writing his arbor poetry as Yue-fu poetry. As written above, Choe Changdae's arbor poetry not only shows us his changed consciousness about the arbor in the late 17th century but also lets us glance at the new trend of Chinese poetry in the 18th century.

Key Words

Choe Changdae, arbor poetry, arbor, Yue-fu poetry (樂府詩), Jarak (自樂)

논문투고일 : 2020.01.31

심사완료일 : 2020.02.16

게재확정일 : 2020.02.20